

# 經營學(組織理論)研究方法에 있어서 辨證法 的 接近에 대한 考察

— 認識論的 理解를 中心으로 —

A Study on Dialectical Theory for a Management Research

— Epistemological Inquiry —

白 匡 基\*

(Baek, Gwang-Gi)

## 〔目 次〕

- I. 序 論
- II. 社會科學 研究方法論 論爭
- III. 辨證法의 原流
- IV. 辨證法的 마르크스主義의 發達
- V. 마르크스主義와 現象學
- VI. 辨證法과 批判理論
- VII. 結 論
- 參考文獻

## ABSTRACT

For the past few decades functionalism have dominated the epistemological arena in organizational science. However, the positivist-inspired movement of functionalism have proved inadequate for explaining the radical transformations of organizations, During the last decade dialectical theory has been starting to be heard. This paper identifies the dialectic as the unifying principle of a broad and diffuse tradition of thought. Beginning with a excavation o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dialectical theory in the thought of Kant, Hegel, and Marx, this paper goes through the various twists and the turns of the dialectic in the major twentieth-century movements of neomarxism, phenomenology, and critical theory.

Also, this paper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the dialectical approach in organization science. The discipline of organization theory has been imprisoned by its functionalism, therefore, stimulating an awareness through which it can begin to set itself free has become imperative. Dialectical theory, because it is essentially a process perspective, focuses on the dimension currently missing in much organizational thought, It opens analysis to the processes through which actors carve out and stabilize a sphere to the processes through which actors carve out and stabilize a sphere of rationality and those through which such rationalized spheres dissolve.

## I. 序 論

辯證法이 社會科學 研究方法論上 政治學이나 社會學에 있어서 지배적인 認識論的 基盤을 이루고 있으나 經營組織學研究에 있어서는 機能主義(Functionalism)<sup>1)</sup>의 威勢에 눌러 看過되어 왔었다. 그러나 요즘들어 機能主義的 研究의 限界를 인식하게 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組織理論 分野에 있어서 辯證法이 認識論的 패러다임(paradigm)의 하나로서 研究및 論議가 持續 되고있다. 이것은 機能主義的 研究를 보완하여 이의 限界를 克服하고자 하는 시도로 看做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組織理論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世界觀의 도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辯證法의 影響을 받고 있는 既存의 組織研究로서 批判理論(Critical Theory)과 現象學(Phenomenology)의 研究를 들 수 있다. 組織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과(Frankfurt School)를 중심으로 한 批判理論도 실은 辯證法에 根據하고 있으며, 分析的이고 演繹的인 組織理論 研究 方法론에 對하여 제시되고 있는 現象學的 研究도 辯證法과 對比하여 이해될 때 비로서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辯證法에 입각한 패러다임이 組織理論 研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辯證法에 관한 科學哲學的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論文은 哲學者로서가 아니라 經營學 研究者(특히 조직이론 연구자)로서 필요한 辯證法의 科學哲學的 理解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칸트(Immanuel Kant)에서부터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 이르기까지 辯證法의 生成 및 발전과정을 認識論的 理解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본 論文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序論에 이어 제2장에서는 社會科學 研究方法論에 관한 實證主義와 歷史主義의 논쟁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칸트(Immanuel Kant), 헤겔(G.W.F. Hegel), 그리고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하여 정립된 現代辯證法의 뿌리를, 그리고 제4장에서는 루카치(Georg Lukacs)에 의한 辯證法的 마르크스主義(Dialectical Marxism)의 발전을 論한다. 제5장과 6장에서는 現象學(Phenomenology)

註 1) 이는 규제와 객관주의의 관점에 입각하는 것으로 이의 특징은 現狀, 사회질서, 합의, 사회통합, 連帶性, 要求充足 및 實在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것이다. 金元銖, 經營學研究方法論, 서울: 博英社, 1989, pp.119-120. 상세한 비교설명은 Morgan, G. "Paradigms, Metaphors and Puzzle Solving in Organization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5, 1980, pp.605-622.을 참고할 것.

과 批判理論(Critical Theory)을 辨證法的 마르크스주의(Dialectical Marxism)에 입각하여 比較 分析한다. 제6장 結論에서는 組織理論研究에 있어서 辨證法이 지닌 含蓄된 의미를 本論文에서의 論議에 입각하여 照明하도록 한다.

## II. 社會科學 研究 方法論 論爭

行態主義와 이미 비판세력인 歷史主義 사이의 認識論的 대립이 여태까지 社會科學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의 주 論爭이었다.<sup>2)</sup> 行態主義는 純粹科學의 입장에서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가치중립적 위치를 취하며 그 분석에 있어서도 사회제도 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치중되고 있다. 따라서 行態主義에 있어서는 인간의 行態를 중심으로한 사회현상 속에서 일정한 통일성을 찾아내어 一元論的(monological)<sup>3)</sup>인 命題들을 창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行態主義者들의 견해에 대하여 그 비판의 기초를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세계관에 두고 있는 歷史主義論者들은 自然世界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이 인간행태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행동은 비이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현상의 實在란 제각기 독특한 것이지 통일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현상의 이해는 정의와 불의,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므로 판단기준에 관한 지식이 사회과학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을 부정한다. 또한 체계화된 이론에 관심을 두는 行態主義와는 달리 歷史主義에 있어서는 정책에 보다 더 관심을 쏟는다.

이러한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두 선도적 견해사이의 논쟁은 행태주의의 認識論의 근거인 實證主義와 여기에 반기를 든 歷史主義(Historism)의 주장으로 집약될 수 있는 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식론적 논쟁이기에 인간지식의 본질과약에 관한 이같이 서로 다른 견해가 학문연구방법론상에 부단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實證主義는 인간을 자연적 존재 이상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인간정신의 산물인 사회적, 역사적 현상도 자연현상과 같이 불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주의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 존재와는 다른 인간적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므로 자연과

註 2) 金光雄, 社會科學研究方法論 - 調查方法과 計量分析 -, 서울 : 博英社, 1984. pp.26-46. 金元銖, Ibid., pp.134-158.

註 3) 인식론에 있어서 대상과 그대상의 지각표상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라는 견해.

학의 방법이 사회과학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방법론상에서 문제삼는 역사주의는 인식의 테두리에서 보아 모든 인간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견해를 지니게 된다. 쿤(T.S. Kuhn)은 패러다임이론에서<sup>4)</sup>, 페이어라벤드(Paul Feyerabend)는 인식론적 무정부주의(Epistemological Anarchism)<sup>5)</sup>에서 표현만 다를 뿐 이러한 역사주의의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행태론자들은 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주장한다.

방법론상의 문제에 있어 실증주의(행태주의)와 역사주의 어느 한 쪽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 방법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추구되는 것이 辨證法(Dialectical Theory)인 것이다. 변증법이 사회과학 방법론의 연구테마로 등장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사회과학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자연과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적인 학적기초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자연과학화라는 오랜경향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辨證法에 의하면 과학의 理論作業은 法則진술이나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知識의 획득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의 自明함을 그 表面에서 꿰뚫어 보고 설명할 수 있는 批判的이고 思辨的인 科學性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 Ⅲ 辨證法의 原流

#### 1. 칸트(Immanuel Kant)

실증주의가 속하는 철학사조는 경험론(empiricism)이다. 경험론의 중심에 놓이는 개념은, 외부세계에 관해 인간 주체가 갖는 신념은 경험에 의해 판정될 수 있을 때 비로서 지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合理主義 입장에서는, 지식에의 주장은 수학에 의하여 이미 확립되어 있는 연역적 증명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타당하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 원리는 경험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아는 것이라 한다. 합리론과 경험론간의 논쟁의 초점은 생득적, 선형적이면서도 종합적인(단순히 규정상의 진리가 아니라 세계에 관해 알려주는) 지식이 가능한가 하는

註 4)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註 5) Feyerabend, P., Science in a Free Society. London: New Left Books, 1978.

것이였다.<sup>6)</sup> 칸트(Immanuel Kant)철학의 과제는 바로 과학주의적 성향과 전통적 形而上學의 사상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試圖(다시말하면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의 종합)는 한편으로 근대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인식조건은 무엇이며 이런인식은 어느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의 해답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래의 형이상학의 여러가지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물음이다.

因果의 필연성 개념을 비롯한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칸트(Kant)의 擁護는 純粹理性批判에 제시되어 있다. 칸트(Kant)는 인과적 필연성 개념이 경험으로부터 추리될 수 없다는 회의론적 주장은 인정하지만 이때문에 인과적 필연성 개념이 합리적 기초를 갖지 못한다는 결론은 거부한다. 오히려 객관적인 인과적 판단의 정당성을 가정하고, 그 가능성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객관적인 인과적 판단의 가능성의 조건은 우리의 지각 경험의 다양성이 어떤 선형적인 인과 개념—즉, 어떤방식으로도 경험으로부터 추리되거나 도출되지 않은 인과성 개념—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경험적으로는 우리의 외부에 실재하고 있지만 선형적으로는 우리의 심성의 산물인 것이다. 경험적 실재성과 선형적 관념성은 결국 하나의 같은 진리를 언명한 것이요.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식의 성립은 感性(表象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印象의 수용성)과 悟性(받아들인 表象을 통하여 대상을 認識하는 능력, 즉 概念의 自發性)의 결합에 의하여 가능하다. 先驗的(經驗으로부터 독립된)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인(단순히 규정상 참인 것에 그치지 않는) 원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칸트(Kant)는 합리론자 편에서 있는 것 같으나 경험론자 쪽에 동의하는 측면도 있다.<sup>7)</sup> 왜냐하면 종합적인 선형적 원리는 가능한 감각적 경험의 내에서만 올바르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칸트(Kant)는 가능한 경험을 넘어서서 本體界(noumena)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神, 자유, 부도덕성의 觀念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觀念들은 경험으로부터 추출되지도 않고 경험속에서 적용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들 觀念을 知覺의 形式(시간, 공간)과 悟性의 範疇들(原因, 實體, 屬性 등)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칸트(Kant)는 그것을 純粹理性的 觀念이라고 부른다. 純粹理性的 觀念들이 그릇되게 경

註 6) Warren, S., The Emergence of Dialectical Theory-Philosophy and Political Inqui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24-27.

註 7) 李壽允, 政治哲學－認識과 實踐의 統一-, 서울: 法文社, 1981, pp.137-144.

힘의 대상에 적용될 때나 또는 悟性的의 範疇들이 本體界(noumena)에 적용될 때는 思辨的 形而上學이 생겨나며 우리의 사고는 절망적인 혼동과 모순에 빠진다. 여기에서 二律背反(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命題)에 바지게 되고 이는 단적으로 悟性的의 한계를 지시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純粹理性이 갖는 二律背反의 해결책은 實踐理性으로 넘어온다.

칸트(Kant) 철학의 이해는 矛盾의 발견이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그의 철학은 矛盾의 근원을 밝혀내고 認識이 가능한 領域과 가능하지 않는 領域을 구분하는 理性批判을 수행하도록 하여준다.

## 2. 헤겔(G.W.F. Hegel)

純粹理性의 觀念을 사용하여 그 自體 있는 그대로의 事物에 대한(本體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二律背反과 矛盾에 빠진다. 悟性的의 範疇를 가능한 經驗의 한계 너머에 적용하려는 試圖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다. 形而上學的 思考 - 理性의 思辨的 활용-의 이러한 필연적인 矛盾性은 칸트(Kant)의 形而上學 批判의 기초를 이룬다.

헤겔(Hegel)에 따르면 칸트(Kant)는 理性의 形而上學的 기능에 있어서의 矛盾의 필연성을 인식한 점에서는 정확했다. 그러나 칸트(Kant)는 事實의 意義 - 즉, 形而上學的 思考의 제 矛盾은 단계 높은 超越的 統一性, 곧 絕對觀念 또는 絕對精神 속 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다.

헤겔(Hegel)은 칸트(Kant)의 批判哲學에 의하여 최후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여겨지는 思辨的 形而上學的 부활론자이다. 헤겔(Hegel)에게 있어서는, 理性의 최고 기능인 絕對精神에 대한 思辨的 지식이 지식의 최고 형태이다. 思考가 現象的 實在에 관한 과학적, 상식적 悟性에 머물러 있는한, 그것은 現象너머에 놓이는 궁극적, 정신적인 現在에 관한 지식으로 부터 차단될 뿐만 아니라 또한 現象自體도 끝내 파악하지 못한다. 現象은 참된 實在의 외관에 불과하다. 矛盾을 초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통일성은 정신적 또는 觀念的인 종류의 통일성이다.

플라톤(Plato)이후 헤겔(Hegel)에 있어서는 이데아(Idea)라는 理念은 환상적인 단순한 想念이 아니고, 사회적 현실성에 대한 客觀的 概念이었다. 그러한 객관적 개념으로서의 理念이란 實在하는 참존재라는 것이고, 그러한 理念이 具體的인 精神的 통일로서 個個人 혹은 個個事物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理念이 나타나기는 하되 直線的인 過程이거나 혹은 曲線的인 經過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辨

證法的인 社會形態속에서 顯現한다는 것이다.

한 事物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것이 무엇이 아닌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어떤 한단계 높은 전체성 속에서의 矛盾의 辨證法的 통일법칙을 지지하고 矛盾律을 포기하는 것은, 과학적, 상식적 사고에 의해 부여된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矛盾의 각 측면은 어떤 한단계 더 높은 개념적 통일성 속에서 종합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은 또 다시 더욱 높은 종합에 초월되어야 할 그 自體의 矛盾에 직면한다. 따라서 矛盾과 종합의 거대한 位階秩序의 頂點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絕對精神의 총괄적인 통일성이 완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통일의 이론이 가능한 것은 그의 철학이 갖는 根本前提, 즉 絕對者(The Absolute)를 인정하는데서 유래한다.<sup>8)</sup>

헤겔(Hegel)에 있어서 理念이거나 理性 혹은 精神, 더 나아가서 絕對者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실현시키는 最終目標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絕對者가 일단 자신을 否定하고 外生해서 자연속에 絕對者의 本質要素로서 隱蔽되어 他者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他者가 바로 絕對者 혹은 理念이 外化되어 나타나 있는 자연이고, 自然으로서의 그러한 他者에게 다시 自己自身에게로 돌아온 것이 理性 혹은 精神이다.<sup>9)</sup>

그에 의하면 辨證法的 運動의 3 契機, 즉 抽象的 또는 悟性的 契機, 辨證法的 또는 否定的 理性的 契機, 思辨的 또는 肯定的 理性的 契機는 단순히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이 絕對者가 자신을 표출하는 방식이며 絕對者를 精神(Geist)이라하는 입장에서 絕對精神의 발전단계이다. 그리하여 經驗的인 歸納論理가 具體的인 經驗的 事實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抽象的인 최고개념으로서의 存在에 도달하는데 反하여 辨證法的 論理는 絕對精神이 자신의 규정된 제한을 넘어서 완전히 실현된 絕對理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辨證法에 있어서의 眞理는 최후의 限界라는 段階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流動的인 現實性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眞理는 내일의 眞理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오늘의 非眞理는 내일의 眞理로 轉向될 수 있다. 이러한 辨證法的 矛盾은 動的인 現實性에 대한 逆行이요 그러한 逆行이야말로 새로운 生産性이라는 것이다.

註 8) Mure, G.R.G., An Introduction to Hege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135.

註 9) 白承均, 辨證法的 批判理論, 서울: 經文社, 1982, p.25.



### 3. 마르크스(Karl Marx)

헤겔(Hegel)이후 마르크스(Marx)에 와서 이론과 實踐의 관계문제는 헤겔(Hegel)의 이론이 완전히 思辨的이고 觀念的이라고 단정됨으로서 헤겔(Hegel)의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마르크스적 의미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마르크스(Marx)의 認識論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인간의 實踐이다. 이것은 인간의 實踐이 認識論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점에서 그는 종래의 認識論者들로 부터 一次的으로 구별된다.

마르크스(Marx)는 '人間的 實踐'을 그의 포이에르바하(Feuerbach)命題에서 '感性的 인간적 활동'이라고 표현한다. 실천적 純粹意識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思推하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Marx)에 따르면 思推의 종합작용이 칸트(Kant)에서와 같이 先驗的도 아니며 또한 客觀的 現實의 통일에도 있지않고 오히려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활동안에 있다.

純粹意識이나 純粹精神이 世界를 認識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인식하는 세계속에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意識이, 그것도 삶의 과정을 겪어온 그리고 겪어나가는 인간이 그가 놓여진 역사적, 사회적 상황안에서 세계를 안다. 또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세계에 대한 보다 높은 지식을 쌓아 올린다. 그런데 이세계는 그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끊임없는 상관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손에 의하여 變容된다. 이 變容이 感性的 인간적 실천 이기도 하다. 이 變容의 실천을 통해서 形象과 자료가 종합되고 認識이 성립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적 認識論의 根幹이 된다.<sup>10)</sup>

마르크스(Marx)는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가 對象, 現實등을 客體나 知覺의 형식에서만 보고 인간적 활동을 對象으로 構成하는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공박한다. 물론 그는 唯物論에서 처럼 시간, 공간적 對象을 經驗對象으로 받아들이지만 포이에르바하(Feuerbach)와 같이 受容的인 知覺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시간, 공간적 對象性은 오히려 認識主觀의 能動的 활동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다.<sup>11)</sup> 또한 마르크스(Marx)는 觀念論에 대한 비판에서 이 철학이 客觀的 現實을 非對象的,

註10) Desan, W.. The Tragic Finale: An Essay on the Philosophy of Jean-Paul Sartre, New York: Harper and Row, 1960. pp.91-95. 그리고 同著者の The Marxism of Jean-Paul Sartre, New York: Doubleday, 1965.

註11) Habermas, J.,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Shapiro, J.J.에 의한 번역판, Boston: Beacon Press, 1971, pp.71-186.

精神的 存在로서만 고려한다는 限界가 있음을 지적한다. 마르크스(Marx)는 觀照的 태도를 거부한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며 활동적이고 이론도 인간의 세계와의 관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理論形成이 實踐的 문제에 속한다. 과학 또한 感性的 人間적 活動의 성과로 본다.

헤겔(Hegel)이 철학체계는 자연과 역사는 현실의 창조자로서 精神의 原理에서 전개된다. 이 現實은 精神의 자기 顯現이다. 마르크스(Marx)의 헤겔(Hegel)비판은 바로 이것에 초점을 둔다. 헤겔(Hegel)은 자연과 인간역사를 정신의 具顯으로보나 마르크스(Marx)에게 있어서 자연은 근원적이고 이것은 인간 實踐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헤겔(Hegel)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은 精神의 外生化이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르크스(Marx)는 이 관계를 바꾸어 놓으려고 했다. 마르크스학의 출발점은 헤겔(Hegel)의 그것과 정반대가 된다. 자연과 인간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등장한다. 모든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不斷한 相關關係에서 生成하고 學的 철학은 바로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된다.

마르크스(Marx)는 ‘政治經濟學의 방법(The Method of Political Economy)’에서 두가지 종류의 개념 - 具體的, 複合的 개념(예컨대, 人口)과 抽象的, 單純的 개념(예컨대, 價値, 화폐) - 을 구별한다. 이러한 두가지 수준의 抽象化 개념들은 분석과 종합과정에 의하여 연결된다. 초창기의 경제학 방법은 복합적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서 분석에 의해 단순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종합에 의해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개념으로 옮겨가는 경제학 체계는 나중에 이르러서야 考案되었다. 이러한 분석과 종합 방식의 독특한 점은 그 과정의 출발점을 이루는 구체적, 복합적 개념이 그 과정의 종착점을 이루는 그것과 相異한 認識論的地位를 갖는다는데 있다. 그 과정은 想像的인 복합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과학적인 개념으로 끝이 나는데, 그 최후단계, 즉 단순한 추상적 개념으로부터 구체적 개념의 종합을 마르크스(Marx)는 정확한 과학적 방법이라고 규정짓는다.

마르크스(Marx)는 과학적 개념을 知性에 의하여 遂行되는 變形의 산물이라고도 하고, 또한 歷史的 條件의 產物이라고도 한다. 과학적 개념은 그것이 나타나는 역사적 시기의 단순한 표현이라는 命題라고 보면 이것은 간단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설사 모든 시대에 대해 타당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오직 그것들을 산출해낸 조건 아래에서만 완전한 妥當性을 갖는다. 개념의 妥當性程度가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은 역사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현저한 차이점이다. 이는 마르크스(Marx) 認識論의 극히 중요한 命題로서, 古典派 經濟學에 대한 그의 중심적 비판 - 즉 古典派 經濟學은 부르조아 사회의 諸 範疇를 적용할 때 그것들이 마치 普遍的이고 영구적인 것처럼

럼 취급한다는 것—의 바탕을 이룬다.

#### IV. 辯證法的 마르크스主義(Dialectical Marxism)의 發達

헤겔(Hegel)의 思辨的 辯證法을 실천적 현실행동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辯證法的 觀念的 要素를 비판적으로 제거하거나 혹은 唯物論的 바탕에서 새로 定立해야한다고 주장한자들이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였다. 이들은 헤겔(Hegel)의 觀念論的 辯證法을 否定하고, 唯物論的 辯證法—즉, 現實 一般을 외형적 물질로서 파악하되 헤겔적 辯證法에서 파악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의 법칙을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는 철학적 방법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唯物辯證法에 대한 자연의 합법칙성과 辯證法的 연관성을 적극 연구하여 자연과학의 발전상태를 自然의 辯證法에서 論究한 이는 엥겔스(Engels)였으며 그가 唯物辯證法의 起點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엥겔스(Engels)는 辯證法을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思惟에 있는 普遍的 運動법칙과 발전법칙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였다.

헤겔(Hegel)의 辯證法이 마르크스(Marx)에 의해 社會와 歷史의 영역에서 唯物化되었다면 엥겔스(Engels)는 그 辯證法을 自然化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그후 레닌(V.I.Lenin)이 唯物辯證法을 認識論에 적용시킴으로서 認識過程에 있어서의 辯證法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以後에 비로서 辯證法은 主觀的 辯證法과 客觀的 辯證法으로 양분되었다. 客觀的 辯證理論이란 인간 意識에서 부터 독립되어 있는 外界의 보편적 運動법칙과 발전법칙에 관계한다는 변증이론이고, 主觀的 變증이론이란 客觀的 辯證法의 反映이 인간의 의식과 思惟에 관계한다는 변증이론이다. 前者는 客觀的 世界의 가장 보편적인 발전법칙에 대한 학문이고, 後者는 認識異論의 辯證法으로서 이론과 실천,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그리고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辯證法的 連關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sup>13)</sup>

제1차세계대전 이후 마르크스주의적 이론과 사회적 실천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반성이 새로운 차원에서 대두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에

註12) Smart, B., Sociology, Phenomenology and Marxian Analysis-A Critical Discussion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a Science of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6. 方映俊, 朴長鎬 共譯(사회학, 현상학과 맑스주의 분석), 서울: 螢雪出版社, 1986, p. 42.

註13) 白承均, Ibid., pp.31-78.

서 인간이 세계를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회와 세계를 辨證法的 否定性으로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辨證法은 인간이 眺望하는 하나의 理想社會로 향하게 하는 내재적 발전원리가 된다.

루카치(Georg Lukács)는 사회적 현실성을 그 본질상 역사적이고 변증법적이라고 보아 恒久的이고 불변적인 本質性을 否定하고 나섰다. 그는 辨證法을 역사적 과정의 本質이라고 하였고,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思惟라 하였다. 이 具體的이고 歷史的이고 社會的인 全體가 그에게는 總體性(Totality)이다. 그러므로 이 總體性에는 生成이 內在하여 있고, 그러한 生成의 원동력은 필연적이고, 構成的인 意識이다. 여기에서의 意識이란 일 個個人的 인간의식이 아니고, 無產階級の 實踐的 意識인 階級意識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階級意識이란 無產階級の 自己主張과 自己意識을 말하는 것이다.

브르조아지가 主觀的으로 사회의 특수 일부에만 意識的인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프롤레타리아는 客觀的으로 사회의 전체에 意識的인 관심을 가진으로서 그들은 사회 변혁의 전체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혁의 전체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역사적, 사회적 總體性이다. 즉, 總體性이란 어떤 所與된 것이나 統計的인 것이 아니고, 運動과 目的이 하나의 변증법적 통일을 형성하는 역사적 全體課程을 의미한다. 辨證法의 혁명적 계기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總體性에 있는 것이지 物質的 現象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과정의 總體性을 이루고 있는 要素로서 個個의 事物은 그 바탕과 안정성을 喪失하기 때문이다.

辨證法이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과정으로서 이해되어 왔었다면, 이론적 실천의 과정에 대한 認識의 문제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認識의 문제는 反省的 批判에서 提起된다. 루카치(Lukács)는 認識이란 對象的이고 構成的인 변혁을 認識의 대상에서 對象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實踐的 行爲로서의 主觀的 認識을 意味한다.

## V. 마르크스主義와 現象學

### 1. 現象學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모든 事象(events)을 계량화 하려는 思惟 습성과 모든 문화

현상을 物象化(Verdinglichung)하려는 태도에 대한 反作用으로 인간주의의 재확립을 주장하는 現象學으로의 關心이 일기시작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세계와 문화세계를 그 창조적인 인간의 主觀性으로부터 분리해서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훗설(Edmund Husserl)의 現象學은 本質의 認識을 강조하고 있다.<sup>14)</sup> 認識理論의 절대적 과제에 認識對象의 本質意味를 명백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서양철학에 있어서 認識論의 입장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客觀主義이고, 둘째는 主觀主義이며 세째는 主觀主義와 客觀主義의 통일이다. 만일 主觀적으로 생각한다면 객관세계는 主觀의 專橫에 맡겨지고 實在하지 않으며, 한편으로 객관세계가 客觀적으로 파악된다면 主觀은 世界 肯定의 認識主義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主觀과 客觀은 공존한다고 말한다.

훗설(Husserl)이 근거하고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세계이다. 어떠한 것도 생활세계를 외면하고서는 의미가 없다. 그것들이 眞實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들이 살아있는 생활세계의 照明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생활세계는 私的세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타인에 의하여 경험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져 왔던 세계이다. 내가 어느 對象에 부여하는 意味가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과 같은 의식을 가진 타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훗설(Husserl)의 現象學에 있어서 社會科學의 方法論을 정립할 수 있는 주요개념이 되었다.

## 2. 마르크스주의와 現象學의 合流

마르크스주의는 唯物論이다. 마르크스주의가 認定하는 바에 따르면, 物質이 유일한 實在을 구성하는 것이며 意識은 物質의 특수한 한 形態이다. 이 唯物論은 辯證法的이다. 物質은 하나의 運動에 따라 스스로를 展開시키는데 이 운동의 원동력은 後續 段階에 의한 先行 段階의 廢棄, 保存 및 止揚 속에 있다. 意識이란 이 단계들 중의 어떤 하나이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모든 物質的인 形態는 그 自體속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 의미란

註14) Husserl, E.,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 Iny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hilosophy*. Carr, D.에 의한 번역판,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先驗的 意識으로 부터 독립해서 존재한다. 이미 헤겔(Hegel)은 現實的인 것은 모두 理性的인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이러한 意味의 現存을 파악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의미를 소위 精神에 귀착시킴으로서 자연과 역사는 精神의 實現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觀念論者와는 달리 存在와 意味의 분리를 거부한다. 現象學도 이러한 분리를 거부한다.

훗설(Husserl)은 現象만이 존재하는데 現象속에 本質이 주어진다고 본다. 그는 現象에 內在된 本質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判斷中止에 의하여 偶然的 現存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現存에 대하여 判斷中止를 한다는 것은 現存一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現存的 實在을 形而上學 연구를 위한 可能的 對象 즉, 本質의 領域으로부터 제거시키려는 것이다. 現象學은 첫째 現象的 還元에 의하여 자연적 事實을 배제하고 다시 先驗的 還元에 의하여 의식 초월적 本質을 배제한 뒤에 남은 소위 現象學的 殘餘로서의 純粹意識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還元에 앞서있는 자연적 세계의 實在인 物質은 現象學에서 보면 그 自體로서는 意味를 잃고 있다. 인간에 의하여 가공된 물질은 더 이상 物質이 아니라 文化的 對象이다.

現象學은 本質的으로 역사의 의미와 階級意識의 두 테제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한다. 계급은 窮極的으로는 客觀的인 생산관계에서의 상황(下部構造)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데 계급의 크기와 그 투쟁력의 변동은 이 下部構造의 不斷한 變動의 反映이며, 이 변동이 바로 上部構造의 모든 要因(소위 정치적, 종교적, 법률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들)과 辨證法的으로 묶여있다. 역사의 원동력인 階級鬭爭의 辨證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上部構造가 下部構造 즉, 物質의 生産과 矛盾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메를로-뽕띠(Merleau-Ponty)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up>15)</sup> 즉 이데올로기는 幻影, 假象, 誤謬가 아니라 下部와 똑같이 바로 實在라는 것이다. 경제적인 것의 優位性이 上部構造의 眞理를 제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上部構造의 眞理를 體驗하는 實存에 있어서 그 진정한 근원으로 복귀시킨다. 이데올로기적 構成物이 생산양식과 상관적인 것은 이러한 구성들이 생산양식을 반영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構成物이 그것의 모든 意味를 이끌어 내는 것은 그것에 相應하는 경험으로부터이며, 또한 여기에서 정신적인 價値들이 表象되는 것이 아니다 체험되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意識에 관한 現象學的 분석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한 복판에까지 밀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비로서 上部構造의 근원으로 들어간 이 意識과 이러한 意識이 窮極的으로—단지 窮極的의만—연류되어 있는 경제적 下

註15) Habermas, J., Ibid., pp.190-198.

部構造와의 변증법적 관계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의 의미는 客觀的인 동시에 主觀的이 된다. 즉 必然的이면서 동시에 偶然的인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인 것에 직접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實存的인 것과 접촉되어 있다. 혹은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 이미 실존적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결정의 자유는 그들에 의하여 現實的인 것으로 체험된다. 따라서 革命의 문제는 단지 새로운 경제체제가 편제되고 수립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성의 意味 自體가 인간에 의하여 實現(現實化)되는데 있다. 마르크스(Marx)의 이론이 獨斷이 아니고 행동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는 것은 이러한 意味에서다.

## VI. 辨證法과 批判理論(Critical Theory)

전통적 社會哲學이 肯定的論理에서 출발하였다면, 현대 社會哲學은 否定的 辨證法에서 출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前者는 사회의 安定性을 추구하여 왔고 後者는 사회의 力動性을 추구해 왔다. 前者는 공격에 대한 방어와 방어에 대한 공격을 主眼點으로 하였으나, 後者는 安定에 대한 批判과 批判에 대한 생산적 肯定性을 主眼點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後者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를 한결같이 하나의 思潮로서 취급하고 있음은 해질적 마르크스주의야 말로 현대 사회철학의 공통분모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대철학의 한 思潮로서 批判理論(Critical Theory)은 인간의 행복은 物質的인간관계와 理性的 사조조직에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批判理論은 마르크스(Marx)의 철학사상에 根據하거나 관련되어있는 경제적, 사회적 현실문제에 직결 되어있다. 다시말하면 물질적 인간생활의 행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생활의 행복은 觀念的이 아닌 現實的, 物質的 관계를 변화시킬 때 비로서 가능하며, 그러한 변화는 現存하는 사회적 機構를 분석하는데서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무위적인 사회적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具體的이고 실현가능한 생산력의 力動을 말하는 것일 때, 이것이 理性的 사회의 이념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批判理論은 현실사회에 대한 철학의 自己反省이다. 철학의 자기반성이라는 것은 自己自身에게 되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자신을 동요시키는 자기 統一性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哲學은 辨證法的 批判能力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등 후기 프랑크푸르트학과(Frankfurt School)들은 인간

의 자연성의 문제를 그 자연성을 왜곡하고 손상하고 빼앗고 있는 사회와 역사로부터 생각하려고 한다. 제도와 관습, 사고방식등 모든 생활관념의 지배적 기만성에서 자연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성이나 자연성이 그릇 흐르게 된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意識言語는 그 구체적인 實像에 있어 역사적으로 묻어오고 있는 때가 끼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란 결국 그대로 얼룩진 意識의 集積, 즉 때묻은 言語現像이기 때문에 현대의 철학적, 문화적 관심은 그 의식과 사회의 역사적인 때—즉, 이데올로기—를 씻어버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때(이데올로기)로 부터 해방할 수 있게 하는 實踐能力을 다루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마스(Habermas)등의 이러한 때 추방론—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 비판—에는 당연히 때묻지 않은 결백 순수한 인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하버마스(Habermas)는 ‘自然性’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自然性の 문제는 本質的으로 東西哲學의 宿題가 되어왔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경우도 동양철학이 그러하듯이 자연을 存在論의 근거로 생각하였고, 그에 앞서 훗설(Husserl)에 있어서는 現象哲學 還元과 더불어 形象으로 추구되었다. 하버마스(habermas)가 내세우는 자연성은 물론 역사이전의 意識, 아무런 媒體의 개입이 없는 意識을 말한다. 하버마스(Habermas)에 있어서는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라는 것과 그 사회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연성의 회복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직선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은 理性이 그 자연성의 회복의 열쇠로 등장해야 되고, 로고스(logos)가 애초에 言語 = 良心이었던것 처럼 그들의 모든것은 말의 權能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아주 단순한 三段論法으로 마르크스주의의 辨證法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한편 批判理論은 社會科學의 方法論에 있어서 自然科學의 모델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간은 自然科學의 對象과 같은 研究의 對象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社會科學의 對象은 主題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批判理論은 그 自體가 可變的인 것이며 그 自體의 범주를 알려주는 역사적 조건의 분석을 통해서 역사적 현실에 대한 範疇을 새로이 채택하려고 한다. 이와같이 批判理論은 일정한 社會的 사실에 대하여 어떤 보편적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의 참됨을 證明하는 行爲에 局限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기타의 가능성과 대결하여 矛盾을 찾고 社會的 사실을 하나의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관찰하려 한다.<sup>16)</sup>

註16) Habermas, J., 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Materialien, Suhrkamp Verlag, 1970. 朴性洙譯 (社會科學의 理論), 서울 : 文藝出版社, 1986.



## Ⅶ. 結 論

복잡한 현대 組織에 관한 연구는 주로 合理的이고 機能的인 이론들과 實證的 方法에 의하여 주로 進行되어 왔다. 이러한 研究傾向의 결과 經營組織理論은 批判的 理論을 受容 發展시켜 나아가는데 있어서 失敗하였다.<sup>17)</sup>

客觀主義的, 機能主義的 환상이 社會科學을 현혹시켜 현실을 법칙적으로 구성된 사실들로서 이루어진 현실 그 자체로 파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을 다루게 되면 그것은 사실들의 본질적 구성을 은폐시키고 그에 따라 지식과 관심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방해하게 된다.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과학 모델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社會科學에 미친 명확한 결과는 검증이나 확인 과정에 內在하고 있는 감각적 경험의 사회, 문화적 성격이 외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既存의 組織分野의 이론적 구성도 일반적으로 조직의 現狀態에 있어서의 實體에 얽매어져 있고 또한 이 實體를 確認하는 傾向을 띄고 있다.<sup>18)</sup> 그러나 組織의 근본적 변형은 이러한 이론들을 懷疑的 觀點에서 바라보게 할 것이며, 앞으로 辯證法的 分析이 現存 理論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辯證法的 理論은 本質的으로 過程的 見解이므로 기존의 많은 組織社會學 思考에 있어서 着過되고 있는 次元을 重點的으로 다룰수 있다. 즉, 辯證法은 생산, 재생산, 그리고 특정 조직형태의 消滅에 관련하는 諸過程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아울러 辯證法的 分析은 법칙진술이나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획득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행위나 사회적인 사실의 自明함을 그 裏面에서 꿰뚫어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과학성도 제공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組織次元의 분석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조직 이론 연구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마르크스적 思考의 활용은 여태까지 극히 制限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辯證法的 思考는 현재 조직이론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정통이라고 看做되어왔던 기존의 접근방법들에 도전을 하고

註17) 경영조직이론에 대한 비판이론의 접근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할 것. 梁創三, 組織行動論, 서울 : 大英社, 1988, 제12장 : 비판조직이론, pp. 515-546.

註18) 하우톤(Howton, F.W.)은 전체사회에 대한 합리화와 기능화의 확산을 그려보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회는 전반적인 목표들에 기여하는 정선된 명료한 부품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될 것이다.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면, 이러한 조직의 발전은 합리적, 기능적 조직이론들의 지속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 영역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기능적 이론들이 이러한 새로운 조직사회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조직사회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지 못한다.

있으며, 새로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辨證法에 관한 認識論的 理解가 經營學 研究者들(특히 經營組織理論 研究者들)에 있어서 절실히 要求되는 것이다.

## 參考文獻

- 姜信澤, 社會科學研究的 論理 - 政治學, 行政學을 中心으로, 서울 : 博英社, 1989.
- 金光雄, 社會科學研究方法論 - 調查方法和 計量分析, 서울 : 博英社, 1984.
- 金元銖, 經營學研究方法論, 서울 : 博英社, 1989.
- 朴異汶, 現象學과 分析哲學, 서울 : 一潮閣, 1985.
- 白承均, 辨證法的 批判理論, 서울 : 經文社, 1982.
- 신일철, 현대철학사상의 새흐름, 서울 : 집문당, 1987.
- 梁創三, 組織行動論, 서울 : 大英社, 1988.
- 오세철, 현대사회의 조직과 변동, 서울 : 학민사, 1986.
- 원형갑, 현상학과 뉴마르크시즘, 서울 : 평범서당, 1985.
- 李壽允, 政治哲學 - 認識과 實踐의 統一, -서울 : 法文社, 1981.
- 임석진, 시대와 변증법, 서울 : 청사, 1978.
- 차인석, 사회인식론 - 인식과 실천, 서울 : 민음사, 1987.
-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의 哲學, 서울 : 민음사, 1980.
- Astley, W.G., & Van de Ven, A. "Central Perspectives and Debates in Organization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8, 1983. pp.245-273.
- Benson, J.K. "Organizations: A Dialectical Vi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2, 1977, pp.1-21.
- Desan, W., *The Tragic Finale: An Essay on the Philosophy of Jean-Paul Sartre*, New York: Harger & Low, 1960.
- \_\_\_\_\_, *The Marxism of Jean-Paul Sartre*, New York: Doubleday, 1965.
- Dubin, R., *Theory Building*, New Yourk: Free Press, 1969.
- Feyerabend, P., *Science in a Free Society*. London: Now Left Boks, 1978.
- Frost, P. "Toward a Radical Framework for practicing Organizational Scie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5, 1980, pp.501-507.
- Gioia, D. A. & Pitre, E. "Multiparadigm Perspectives on Theory Build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5, 1990, pp.584-602.
- Habermas, J.,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Shapiro, J.J.(번역판), Boston : Beacon Press, 1971.
- Habermas, J., *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Materialien*, Suhrkamp

- Verlag, 1970. 朴性洙 譯(社會科學의 論理), 서울 : 文藝出版社, 1986.
- Howton, F.W., *Functionaries*, Chicago: Quadrangle Books, 1969.
- Husserl, E.,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hilosophy*. Carr, D.(번역판),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 Mure, G.R.G., *An Introduction to Hege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Morgan, G. "Paradigms, Metaphors and Puzzle Solving in Organization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5, 1980, pp.605-622.
- \_\_\_\_\_, & Smircich, L. "The Case for Qualitative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5, 1980, pp.491-500.
- Sanders P. "Phenomenology: A New Way of Viewing Organization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7, 1982, pp.353-360.
- Smart, B., *Sociology, Phenomenology and Marxian Analysis - A Critical Discussion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a Science of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6. 方暎俊, 朴長鎬 共譯(사회학, 현상학과 맑스주의 분석), 서울 : 螢雪出版社, 1986.
- Steffy, B.D. & Grimes, A.J. "A Critical Theory of Organization Scie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1986, pp.322-336.
- Warren, S., *The Emergence of Dialectical Theory - Philosophy and Political Inqui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